



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겿세마네로 가셨다. 예수께서 "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."(마가복음 14:41)



겿세마네(위)와 골고다(아래)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. 그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타락에서 구하셨다.



기원: 왼쪽: 켈터 레인; 위: 오 나의 아버지시여, 시몬 두미; 왼쪽: 신자기에 둘러심 © BALAGE BALOGH/ART RESOURCE, NY; 오른쪽: 예수 밀면, 안토니오 시에리 © GUILDHALL ART GALLERY, 런던/브링스던 미술품 전시장

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한 동산의 묘지에 놓여졌다.



우리는 인간의 철학과 현인의 지혜를 버리고,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.

우리는 경전을 탐구하고, 그것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음성으로,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

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동산, 즉 에덴동산과 겿세마네 동산, 그리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빈 무덤이 있던 동산이 떠오를 것입니다.

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죽음도 없고, 생식도 없고, 시련도 없는 낙원과 같은 상태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.

우리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창조가 타락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.

그런 다음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불멸의 상태와 낙원의 영광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필멸의 육신을 지닌 첫 번째 인간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.

생식과 사망 같은 지상 생활이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. 또한 범범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시험을 받는 상태가 시작될 것입니다.

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겿세마네 동산에서,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현세적 및 영적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.

그리고 마침내 빈 무덤 앞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, 무덤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로 서 계시는 사실을 알게 될